

“광주 발전 책임자 바로 나”... 민주-안신당 광주시장 대격돌

광주시장·시교육감·구청장 유력 출마 후보

■ 광주시장

				
· 강기정(49·민) · 국회의원(3선) · 전민주당 최고위원	· 강운대(65·민) · 광주시장 · 전·국회의원(2선)	· 윤장현(65·안) ·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 전·YMCA 이사장	· 이용섭(62·민) · 국회의원(재선) · 전·건설교통부 장관	· 정동화(49·무) · 충남미래연대 이사장 · 전·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

■ 광주시교육감

									
· 고영물(56) · 대구리대학 이사장 · 광주·전남문화유산보존연대 공동대표	· 김승(61) · 동명중 교장 · 전·서부교육감	· 김영수(66) ·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 전·심초교 교장	· 김활범(58) · 조선이공대 총장 · 전·교육부 지치 지원국장	· 박인화(65) ·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 광주초등교장 협의회장	· 박표진(58) · 광주대 교수 · 전·광주교육청 부교육감	· 양형일(62) · 전·조선대 총장 · 전·국회의원	· 윤봉근(56) · 광주시의원 · 전·광주시 교육위 의장	· 장희국(63) · 광주시교육감 · 전·전교조 광주지부장	· 정희곤(61) · 광주시의원 · 전·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 동구청장

						
· 노희원(51·민) · 동구청장 · 전·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 손재홍(53·안) · 광주시의원 · 전·광주시의원	· 양혜령(51·안) · 변호사 · 전·광주시의원	· 오형근(51·안) ·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 전·성형외과 원장	· 임택(50·안) ·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 전·동구의회의원	· 조영복(64·민) · 동구의원(3선) · 전·동구의회의장	· 홍기원(55·민) · 동구의원 · 전·동부여용소방대장

■ 서구청장

							
· 김보환(48·무) · 광주시의원 · 전·국회의원 보좌관	· 김성숙(50·민) · 중앙당 전국여성위원장 · 전·광주시의원	· 김종식(65·민) · 서구청장 · 전·민선 3기 서구청장	· 신현조(56·안) ·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전·서구 부구청장	· 신현근(53·안) ·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 전·서구 부구청장	· 이재인(54·민) · 민주당 부대변인 · 광주시장 부위원장	· 이준원(54·안) ·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 광주시의원	· 임우진(60·민) · 민주당 서구를 지역위원장 · 전·광주시 행정부시장


■ 북구청장

						
· 박복범(51·안) ·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 광주·전남 민연단 상임대표	· 김병도(42·안) ·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 전·북구의회의원	· 문상필(47·민) · 광주시의원 · 호남·동강대 사회복지학 겸임교수	· 송현연(60·민) · 북구청장 · 전·전남도 행정부지사	· 송태종(52·안) · 전·광주시의원 · 전·북구의원	· 조현근(54·민) · 광주시의회의장(재선) · 전·서울증권호남본부장	· 진선기(49·안) · 광주시의원 · '5·18'기념재단 이사

■ 남구청장

						
· 김만근(56·민) · 세무사 · 전·남구의회 부의장(3선)	· 김상활(60·안) · 전·광주시립도서관장	· 김서근(55·안) · 무등외식산업 대표 · 남구 국민생활체육회장	· 나중천(70·민) · 광주시의회 부의장(3선) · 전·남구의회의원(2선)	· 박용권(63·안) · 오성당을 명예회장 · 전·민선 3기 남구청장	· 이철원(55·안) · 변호사 · 전·광주시의회 부의장	· 최형호(49·민) · 남구청장 · 전·광주시의원

■ 광산구청장

							
· 김국봉(63·안) ·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 전·광주시 사회복지국장	· 민형배(52·민) · 광산구청장 · 전·질병관리청외대 비서관	· 사종진(60·민) ·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 전·광산 부구청장	· 송경종(44·안) · 광주시의회 부의장 · 전·광주시의원	· 송병태(75·민) · '21C주민자치 참여연대 수석대표 · 전·민선 2·3기 광산구청장	· 유재신(54·민) · 광주시의사회장 · 전·광주시의원(재선)	· 정선수(59·민) · 전·광주시 공무원교육원장 · 전·광산 부구청장	· 허문수(50·민) · 광주시의원 · 전·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 이사



6·4 지방선거가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설 연휴를 전후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다음달 4일부터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어 21일부터는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들간 치열한 '선거 레이스'가 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일보보는 지난달 '6·4 지방선거 누가 뭐냐'에 소개된 후보들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출마예정자들을 분석해왔다. 또 유력자들이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으로 나서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출마예정자들의 경력과 소속 정당 등을 그래픽으로 소개한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장관급 이상, 재선 이상 국회의원, 대기업 CEO출신, 저명한 학자, 시민운동가 등 중량감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본보 지방선거 후보검증단의 심의를 거친 인사들을 소개한다. 확인되지 않은 출마예정자들은 누락될 수도 있다.

광주 구청장 평균 경쟁률 7.4 대 1 전남 22개 기초단체장은 5.5 대 1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출마 예상자들은 1월 말 현재 10여명으로 경쟁률은 5대1이다.

기초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출마 예상자들은 현재 157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5.8대1이다. 아직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후보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이 민주당과 가칭 '안철수 신당(새정치신당)'으로 출마하려는 후보들이다.

하지만, 아직 선거일까지 4개월 여가 남았기 때문에 출마 후보가 더 늘어나거나 중도 포기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5개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광주에는 37명이, 22개 기초단체장을 뽑는 전남에는 120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출마 선언을 했다.

◇광주=동구와 서구, 북구, 남구, 광산구 등 5개 기초단체장을 뽑는 데 모두 37명이 구청장 도전에 의지를 보이면서 7.4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서구와 광산구 출마예정자는 각 8명으로, 8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남구와 북구, 동구는 각각 7명으로, 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가칭 '안철수 신당' 출마예정자들의 숫자가 민주당 출마예정자들의 숫자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37명의 출마 예정자 중 19명이 최근 신당 창당이 추진되고 있는 가칭 '안철수 신당' 후보를 고려하고 있으며, 17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아직 진영을 택하지 않은 무소속은 김보현 광주시의원 1명이다. 이는 그만큼 이번 광주지역 지방선거에서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위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출마예정자들이 신당을 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민주당 경선보다도 '안 신당' 측 후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관료 출신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거 도전장을 던지고 나섰다. 36명 중 대부분이 정치인이고, 관료출신은 10명밖에 되지 않지만, 선거에 첫 도전하는 관료출신도 5명이나 된다.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의 평균 연령은 55.3세였다. 이중 50대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8명 ▲40대 6명 순이었다. 70대는 2명이었다. 여성 후보는 동구청장 출마 예정자인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과 서구청장 출마 예정자인 김성숙 전 광주시의원 등 2명이다.

◇전남=22개 자치단체장을 뽑는 전남지역에서는 모두 120명이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면서 평균 경쟁률 5.5대1을 보이고 있다.

목포시장 선거에 10명의 출마 예정자가 나와 10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가장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어 보성군수 선거에 8명, 광양·순천·나주·화순·신안·완도군에서는 각각 7명의 출마 예정자들이 나섰다. 반면, 영광과 장성 2명의 후보밖에 없어 일찌감치 1대1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으로 출마를 준비중인 인물은 68명이고, 안철수 신당 측은 33명이다. 무소속도 18명이나 된다. 출마예정자들의 평균 연령은 57.8세였다. 50대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46명, 40대가 26명이었다. 70대는 1명에 그쳤다.

특징적인 것은 출마예정자들의 나이가 예년 지방선거에 비해 크게 낮아져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그림은 고향으로

갑오년에는 사랑과 우정의 마음을 쉽게 전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희망찬 한해가 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지에 우리웃 맞춤 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62-21번지 (금남로 5가역 기업은행 옆 투레뷰트 골목) T.062-228-6330